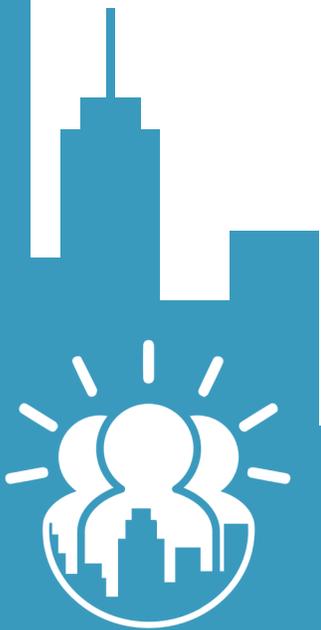


ICT 접근성 조달 정책 채택 가이드

모두를 위한 스마트 시티



Smart Cities for All

감사의 글

이 틀은 세계 각지에서 향상된 ICT 접근성을 홍보하고 구현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전문가들의 도움으로 개발되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리뷰어들의 귀중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Gunela Astbrink, GSA InfoComm 총장

Nicole Bohn, 샌프란시스코 장애인 담당 부서 책임자

David M. Capozzi, 미국 접근성 위원회 상임 이사

Arfaraz Khambatta, 샌프란시스코 장애인 담당 부서 사무관

Laura Ruby, Microsoft Corporation의 전 세계 접근성 정책 및 표준 책임자

Hajime Yamada, 일본의 Information Communication Policy Forum 회장

Renata Zanetti

1

책임자 요약

세계 각지에 있는 스마트 시티는 각각 정보 통신 기술 (ICT) 구매력을 비롯한 상당한 구매력을 이용하여 장애인과 노년층의 권리와 디지털 포용성을 발전시킬 수 있는 특별한 위치에 있습니다. 공동 조달 프로세스는 정부에서 직접 구매하거나 정부에서 자금을 대는 프로그램을 통해 구매되는 ICT 장비, 소프트웨어, 응용 프로그램, 서비스에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정책 수단으로 점점 인식되고 있습니다. 공공 조달의 긍정적인 영향에 대한 글로벌 관심을 높이는 데 가장 크게 기여한 것은 두 가지 유명한 공공 정책 활동입니다. 하나는 미국 재활법 508조(접근성이 뛰어난 전자 및 정보 기술에 대한 연방 정부의 구매, 개발, 유지 관리, 사용을 규제함)이고, 다른 하나는 ETSI EN 301 549(유럽에서 ICT 제품 및 서비스의 공공 조달을 위한 접근성 기준을 포함하고 있는 유럽의 접근성 표준)입니다. 전 세계 전문가들은 접근성이 뛰어난 스마트 시티를 만들기 위해서는 모든 ICT 공공 조달에 접근성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시티 프로그램은 기존 모델 정책과 모범 사례를 활용하여 접근성이 뛰어난 ICT 제품과 서비스의 공공 조달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시티 위원회는 스마트 시티를 "정보통신기술 (ICT)을 사용하여 거주성, 작업성, 지속 가능성을 향상시키는 도시"로 정의합니다.

목표



이 가이드의 목표는 도시에서 구매한 모든 ICT에 대해 장애인과 노년층의 접근성을 요구하는 정책을 채택하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ICT 접근성 정책을 채택함으로써 도시 내 업계 및 공급업체들은 해당 지역의 도시들로부터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는 도시의 기술 조달과 관련된 다양한 역할의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스마트 시티의 기술 공급업체, 접근성 전문가, 스마트 시티 프로그램 관리자, 정책 결정자, 스마트 시티 앱 및 솔루션을 설계하는 개발자, 스마트 시티를 연구하는 학술 기관, 스마트 시티의 포용성을 넓히기 위해 노력하는 장애인 단체와 지지자들에게도 유용할 수 있습니다.

이 문서는 주요 ICT 접근성 기준을 정의하는 몇 가지 우선 순위 표준을 소개하는 “모두를 위한 스마트 시티: 우선 순위 ICT 접근성 표준 구현 가이드” 문서를 보완합니다.

각 문서를 개별적으로 또는 함께 사용하여 도시에서 ICT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표준과 정책을 구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십시오.

UN의 추산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 중 15%, 즉 약 1억 명이 한 가지 이상의 장애를 안고 살고 있습니다. 또한 60세 이상 고령자의 46%가 장애를 겪고 있으며 2억 5천만 명 이상의 고령자들이 중증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모두를 위한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 개요



2016년 6월, G3ict와 World Enabled는 전 세계 스마트 시티의 장애인과 노년층을 위한 ICT 접근성 및 디지털 포용성 현황을 알아보기 위한 국제적 이니셔티브를 시작했습니다. 이 이니셔티브에는 시 정부, 업계, 시민 사회, 학계로부터 250명이 넘는 국제 전문가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글로벌 스마트 시티(키토, 바르셀로나, 런던, 샌프란시스코, 뉴욕)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진행된 원탁 회의, 스마트 시티 프로그램 관리자 및 기술자와의 일대일 인터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사 결과, 오늘날의 대다수 스마트 시티는 접근성이 제한적이며 그로 인해 디지털 세계에서 장애인들이 점차 소외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16년에 모두를 위한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가 설문조사한 글로벌 전문가 중 60%는 오늘날의 스마트 시티가 장애인들을 소외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자립생활, 교통, 전자 정부, 고용, 시민 참여, 안전 및 사법, 투표/선거, 긴급 대응, 금융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글로벌 전문가들은 ICT 접근성 표준과 세계 각지의 스마트 시티 프로그램 간에 뚜렷한 연결 고리가 없다고 말합니다. 조사 대상 글로벌 전문가 중 18%만이 ICT 접근성 표준을 사용하는 스마트 시티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 전문가들은 앞으로 접근성이 높은 스마트 시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공공 부문 ICT 조달에서 접근성이 필수 조건이 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접근성 기술이란?



접근성은 넓은 의미로 ISO TC 159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특성과 역량에 구애받지 않고 최대한 많은 이들이 특정 상황에서 특정 목표에 맞게 제품, 시스템, 서비스, 환경,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ICT에서 접근성은 일반적으로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다양한 사용자가 컴퓨터, 휴대폰, 셀프 서비스 키오스크, 소프트웨어 등 양질의 주류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접근성은 누구나 쉽게 장치를 보고, 듣고, 사용하며 자신의 고유한 취향, 필요성, 능력에 따라 디지털 환경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많은 이들에게 접근성은 스마트 시티 프로그램과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방법입니다.

공공 조달이란



공공 조달은 일반적으로 투명한 경쟁 입찰 과정을 통해 민간 계약업체와 공급업체로부터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공 조달 정책은 상품, 서비스, 인프라 개발을 구매하기 위한 기대치, 조건, 한계를 명시합니다.

공공 조달

"...정부 부서나 현지 기관 같은 공공 기관이 기업으로부터 노동력, 상품, 서비스를 구매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유럽 위원회)

"...공공 기관이 상품 및 서비스 구매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입니다."(CENELE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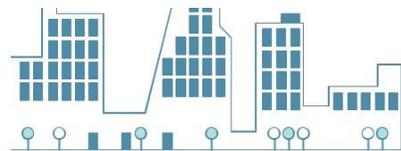
"...정부 또는 공기업이 상품, 서비스, 노동력을 구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OECD)

ICT 접근성의 공공 조달을 위한 정책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공동 조달 프로세스는 정부에서 직접 구매하거나 정부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구매되는 ICT 장비, 소프트웨어, 응용 프로그램, 서비스에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 수단으로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정부들이 ICT 프라이버시 및 보안을 조달 과정에 포함시킴으로써 그 중요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ICT 접근성도 마찬가지로 방식으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공공 조달의 긍정적인 영향에 대한 글로벌 관심을 높이는 데 가장 크게 기여한 것은 두 가지 유명한 공공 정책 활동입니다. 하나는 미국 재활법 508조(접근성이 뛰어난 전자 및 정보 기술에 대한 연방 정부의 구매, 개발, 유지 관리, 사용을 규제함)이고, 다른 하나는 ETSI EN 301 549(유럽에서 ICT 제품 및 서비스의 공공 조달을 위한 접근성 기준을 추가하는 유럽 위원회 규정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된 유럽의 접근성 표준)입니다.

도시가 조달 정책을 통해 디지털 포용성을 선도할 수 있는 특별한 위치에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계적으로 점점 더 많은 인구가 도시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에서 거주하는 장애인과 노년층의 비율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50년에는 전 세계 인구의 70%가 도시에 살고 그중 15% 이상은 장애인일 것으로 예측됩니다. 제3세계에 위치한 2차 및 3차 도시가 도시 인구 증가 추세를 이끌고 있으며 80%의 장애인이 이러한 개발도상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도시화와 고령화 추세는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2000년부터 2015년까지, 60세 이상 인구는 도시에서 68% 증가한 반면 지방에서는 25%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인구통계 추세로 인해 도시는 글로벌 장애인 권리를 실현하는 데 핵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 도시 중 84% 이상이 이미 UN 장애인권리협약(CRPD)에 가입한 국가에 있습니다. Rockefeller Foundation 100대 도시 모두가 UN CRPD를 비준하거나 체결한 국가에 있습니다.

도시는 글로벌 기술 리더이기도 합니다. 2015년에 전 세계 40억 도시 인구 중 89%가 3G 모바일 대역폭 서비스를 이용한 반면 전 세계 34억 지방 인구 중에서는 29%만이 3G 모바일 대역폭 서비스를 이용했습니다. 도시는 글로벌 GDP의 80%를 생산하는 세계의 경제 엔진이기도 합니다. 20대 주요 도시가 전 세계 대기업의 1/3을 보유하고 있으며 글로벌 GDP의 16%를 생산합니다. 이러한 주요 비즈니스 허브로 연결된 회사들이 전 세계 모든 대기업 총 매출의 40% 이상을 창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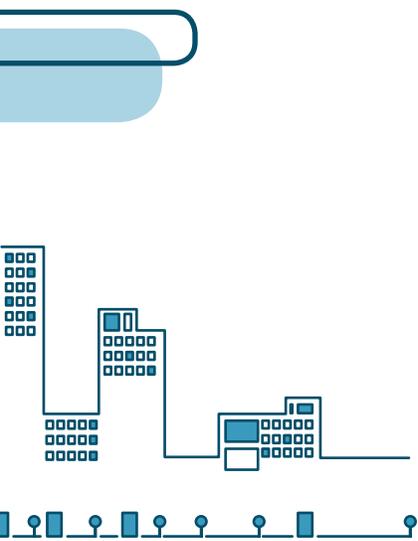
전 세계 인구통계 추세로 인해, 그리고 인권, 기술 및 경제 성과를 주도하는 글로벌 리더십을 통해 도시는 전 세계 장애인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시는 이 가이드에 있는 톨과 점검 목록을 활용하여 ICT 조달 정책을 통해 디지털 포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2

모델 ICT 공공 조달 정책

전 세계 스마트 시티 프로그램은 유력 기관과 글로벌 전문가들이 개발해 놓은 기존 모델 조달 정책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ITU 및 G3ict 모델 ICT 접근성 정책 보고서는 정부 내 모든 단계에서 정책 결정자에게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가이드입니다. 모듈 6에 ICT 접근성 정책 공공 조달 정책 체계가 구체적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모델 정책은 국가적 관리 수준을 비롯한 여러 가지 관리 수준에 맞춰 설계된 것으로서 도시 및 현지 기관에 가장 적합합니다. 도시는 도시 수준의 ICT 접근성 조달 정책을 개발할 때 이 정책을 채택하고 통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델 조달 정책을 사용하는 도시는 자신들의 ICT 조달 프로세스가 국가 정부에서 채택한 것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 정부에서는 ICT 및 기술 구매가 별개의 조달 활동으로 운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기술 구성 요소가 포함된 인프라를 도시가 구매할 때 해당 인프라를 전체 입찰 또는 출시 계획에 끼워서 처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처럼 수년에 걸친 수십억 달러 규모의 대형 계약에 ICT를 끼워넣는 경우가 많으므로 구매 절차가 복잡해지게 됩니다. 도시와 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ICT와 하청 계약을 맺게 되고, 시 정부는 실질적으로 솔루션 선택권을 계약업체에 위임하는 것이 됩니다.



모델 정책이란?



글로벌 모범 사례와 부합하며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수준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합니다.

- 의미 있고 측정 가능한 실용적인 방법으로 접근성을 통합하는 국가, 지역 또는 조직 단계의 조달 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높은 수준의 정책 가이드라인을 규제 담당자와 정책 결정자에게 제공합니다.
- 곧바로 접근성을 조달 과정에 통합하기 시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실용적인 조언을 조달 공무원과 프로젝트 관리자에게 제공합니다.

모든 단계의 공동 조달 기관에 접근성을 필수적으로 갖춰야 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래야 다음과 같은 성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장애인 고용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 ICT 접근성 제품 및 서비스 시장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정책이 주요 조달 단계(입찰 모집, 심사, 선정 과정, 평가 및 검토 등)에서 참조할 수 있는 샘플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ICT 접근성 기능을 통해 사용할 수 있는 제품 접근성 템플릿과 기능적 성능 보고서를 참조합니다(미국 508조 또는 유럽 ETSI EN 301 549의 기존 접근성 표준을 따름).

다음을 수행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기존 조달 정책에 접근성을 추가합니다.
- 시 정부, 지역 기관 등 여러 단계의 정부 기관에서 독립적인 ICT 조달 정책을 개발하여 기존 정책을 보완합니다.
- 조직 단위로 ICT 접근성 조달 정책을 개발하거나 업데이트합니다.

모델 정책의 주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핵심 원칙, 개념, 용어에 대한 정의(p.95 - 96)
- ICT 접근성 공공 조달 정책의 목적과 이점(p.96- 98)
- 목표와 원칙(p.98 - 99)
- 역할과 책임(p. 100)
- 교육, 역량 개발 및 인식 제고(p.101 - 102)
- 정책의 주요 목표에 대한 설명(p.101)
- 예비조사를 통해 알아본 접근성의 타당성(p. 102 - 103)
- 조달 프로세스 - 정보 요청의 주요 단계 및 활동(p.103)
- 기존 표준을 사용하여 접근성 요구 사항 생성(p.104)
- ICT 조달 정책의 범위(p. 104 - 105)
- 접근성 표준을 충족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공급업체 역량 심사(p.105 - 106)
- 계약 조항 및 계약 관리에 대한 권고 사항(p. 107)
- 정책 모니터링, 면제 항목 및 정책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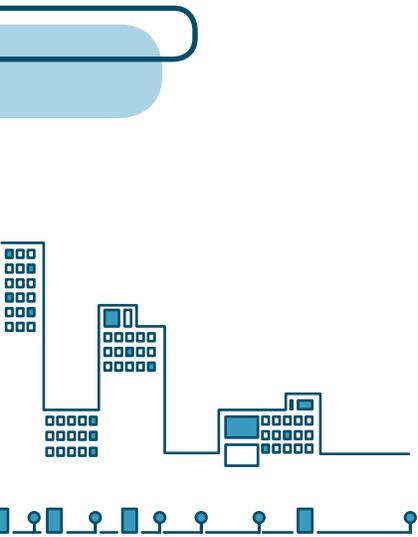
3

ICT 접근성 조달 정책을 채택하기 위한 7가지 단계

장애인과 노년층을 위한 디지털 포용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스마트 시티는 다음과 같은 7가지 단계를 거쳐 ICT 접근성 조달 정책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도시마다 기술 조달을 담당하는 역할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달 책임자, IT 관리자, CIO, 장애인 담당 부서장 등 다양한 직책의 인물들이 다음의 7가지 단계를 주도할 수 있습니다.

- 1단계:** 책임자들 간에 인식 정리 및 제고
- 2단계:** 기존 ICT 및 조달 정책 검토
- 3단계:** 국제 ICT 접근성 표준 채택 및 현지 수준에 맞게 구현
- 4단계:** ICT 접근성 조달 정책을 채택하기 위한 대중의 인식 제고 및 지지 확보
- 5단계:** 모델 정책을 채택하여 도시 단계의 조달 가이드라인에 통합
- 6단계:** 도시 기관 전체에 구현
- 7단계:** 새로운 조달 정책의 구현 검토 및 모니터링



1단계: 책임자들 간에 인식 정리 및 제고



- 시 책임자와 영향력 있는 인사들로 구성된 소규모 팀을 구성하여 ICT 접근성 조달 정책을 채택해야 할 필요성과 그에 따른 이점을 알립니다(예: CIO, 장애인 담당 부서장, 조달 공무원 주임 등).
 - 컨설팅 과정과 리더십 팀에 업계 관계자와 장애인을 참여시킵니다.
 - 입찰을 진행하고 규정 준수 분석과 제품 접근성 평가 등을 수행하게 될 현장 조달 공무원들의 의견을 구해야 합니다. 이들이 조달 정책을 성공적으로 설계하고 구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 디지털 격차를 해결해야 할 타당성 등 ICT 접근성 조달 정책에 대한 교육과 세미나를 주최함으로써 소규모 시 책임자 팀이 합의에 도달하고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합니다.
 - 지속적인 교육 그리고 장애 단체 및 업계 관계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시중에 나와 있는 몇몇 핵심 ICT 접근성 옵션을 살펴봅니다. 이 과정에 시장 공급업체들을 참여시킵니다.
- 조달 정책을 채택하기 위한 다양한 옵션을 살펴보고 발전 계획을 세웁니다.

2단계: 기존 ICT 및 조달 정책 검토



- 도시의 기존 조달 규정이 접근성과 포용성을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핵심 정의가 모범 사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합니다.
 - 모델 정책에서 참조하고 있는 정의를 확인합니다(1항).
 - 도시의 조달 규정에 정기적인 검토 및 개정 주기가 있어서 이것을 접근성을 추가하고 모델 정책을 모범 사례에 맞추기 위한 기회로 삼을 수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 포용적인 조달 정책을 이미 요구하고 있을 수도 있는 기존의 국가 정책이나 공약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 전 세계 170개 이상의 국가가 ICT 접근성 조달 정책을 촉진하는 UNCRPD를 비준했습니다. 거주 국가가 이 조약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http://bit.ly/2kEM1C7>을 참조하십시오.

- 추가적인 국내 ICT 접근성 정책으로는 포용적 교육 정책, 통신 분야에서 접근성을 요구하는 정책, 접근성이 뛰어난 웹사이트를 요구하는 정책, 금융 서비스 분야에서 접근성을 요구하는 정책 등이 있습니다.
- 기술 및/또는 장애인을 담당하는 국내 기관으로부터 기존의 장애인 관련 국내 정책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ICT 접근성 조달 정책 구현의 중요성을 홍보할 수 있습니다. 국가에 따라 해당 기관이 정부일 수도 있고 민간업체일 수도 있습니다.

□ 거주 국가의 정부 조달 정책에서 접근성을 언급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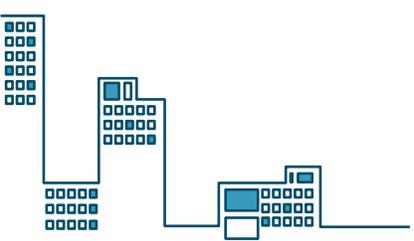
- 2014년에 유럽 연합은 Procurement Directive(2014/24/EU)를 개정하여 유럽 내 모든 공공 단체가 조달 활동을 할 때 접근성에 더욱 신경 쓰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 재활법 508조는 연방 정부가 ICT 제품 및 서비스를 구매할 때 접근성을 필수적으로 고려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 접근성 위원회는 이 요구 사항을 업데이트하는 최종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 EU 및 그 외 18개 국가는 World Trade Organization 게이트웨이를 통해 국내 조달 법률과 정책을 볼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https://e-gpa.wto.org/en/Agreement/Latest>.

□ 국내 표준 기관이 ETSI EN 301 549, 508조 또는 WCAG 2.0과 같은 ICT 접근성 표준을 채택했는지 확인합니다.

- G3ict와 ETSI는 ETSI EN 301 549 표준을 채택하기 위한 로드맵을 작성하는 데 유용할 수 있습니다.
- 국내 표준 기관을 찾으려면 http://www.iso.org/iso/home/about/iso_members.htm 으로 이동하십시오.

□ 다른 근처 도시에서 ICT 접근성 조달 정책을 채택했는지 확인합니다.

- 대부분의 Rockefeller 100대 도시는 CRPD를 비준한 국가에 위치해 있으며, 여기에는 ICT 접근성 정책을 이미 채택하고 있는 스마트 시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3단계:

국제 ICT 접근성 표준 채택 및 현지 수준에 맞게 구현



- 모두를 위한 스마트 시티: 우선 순위 ICT 접근성 표준 구현 가이드 툴을 검토합니다. 이 툴에는 세 가지 우선 순위 ICT 접근성 표준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 직접적으로 참조할 국제 표준을 선택합니다.
 - 모델 정책은 조달 정책에서 글로벌 ICT 접근성 표준을 참조해야 하는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 다룹니다. 모델 정책은 모두를 위한 스마트 시티: 우선 순위 ICT 접근성 표준 구현 가이드 툴에 나온 세 가지 우선 순위 표준과 동일한 아래의 표준을 따릅니다.
 - EN 301 549
 - 미국 재활법 508조 기술 요구 사항
 - W3C WCAG 2.0 /ISO/IEC 40500 (2013) (9조 참조)

4단계:

ICT 접근성 조달 정책을 채택하기 위한 대중의 인식 제고 및 지지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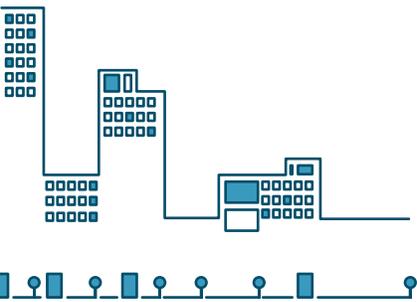


- 다양한 정부 관리자 및 IT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장애 및 ICT 접근성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 및 역량 강화 실습을 진행합니다. 대중을 위한 인식 제고 이벤트를 고려합니다.
 - 명확하게 규정된 교육 및 역량 강화 접근 방식은 우리 주변에 장애인들이 많다는 것과 이들을 포용하기 위한 ICT 접근성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교육 세션을 계획하고 운영하는 과정에 장애인을 포함시킵니다. 이것은 UN CRPD의 핵심 원칙과도 부합합니다. Guide to Planning Accessible Meetings가 이러한 목적에 유용한 참조 문서입니다.
 - 모델 정책의 5.2항은 "접근성이란?", "장애인들이 ICT를 사용하는 방법", "ICT 접근성 사례: 소셜 및 비즈니스", "조달 프로세스에서 접근성을 지정하고 평가하는 방법" 등의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학습 성과를 제안합니다.
- 조달 플랫폼에 등록된 기업 등 업계 관계자들과 회의를 갖습니다.
 - 업계 및 기타 관계자들과 회의를 가지면서 ICT 접근성 조달 정책을 채택하기 위한 비즈니스 및 인권 타당성에 대해 설명합니다(타당성과 비즈니스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는 가이드의 7항 참조).
 - 선도적인 기업들이 조달 정책을 채택하여 자체 공급망과 공급업체 관계를 관리하고 있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 장애인법, 차별 금지법, 정보 접근법 등 국가 및 지역 단계의 기존 법령을 참조합니다.

5단계: 모델 정책을 채택하여 도시 단계의 조달 가이드라인에 통합



- 새로운 정책을 마련, 채택, 구현, 검토하기 위한 일정을 세웁니다.
 - 모델 정책은 국가 정부에 맞춰 설계되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도시 수준에 맞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이 과정에서 장애인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 모델 ICT 공공 조달 정책의 주요 조항을 검토하고 정의를 맞춥니다.
- 도시 수준 정책의 목표를 세우고 대원칙에 합의합니다.
 - 모델 정책의 기본이 되는 여섯 가지 원칙인 차별 방지, 포용, 접근성, 투명성, 경제성, 투자 가치를 포함시킵니다(모델 정책 3.2항 참조).
- 도시 수준의 ICT 접근성 조달 정책을 개발하고 구현하기 위해 역할과 책임을 어떻게 할당할 것인지를 고려합니다.
 - 모델 정책의 4항을 참조하고 ICT 접근성 공공 조달 정책에서 직원, 의회, 위원회의 주요 역할을 정합니다.
- 글로벌 표준에 맞춰 기능적 성능 보고서를 검토하고 고려합니다.
 - 조달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용되는 기술 표준입니다(모델 정책에서 6항과 부록 A의 기능적 성능 보고서 모음 참조). 조항을 직접 참조할 수 있습니다(예: '시각 정보 없이 사용'(2.1), '제한적인 시각'(2.2), '색상 인지 불가'(2.3)). 해당 조항들은 508조 및 ETSI EN 301 549의 조항에 맞추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모두를 위한 스마트 시티: 우선 순위 ICT 접근성 표준 구현 가이드 툴을 참조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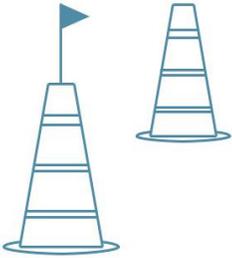


- 계약서 템플릿을 검토하고 계약서에서 접근성을 지정합니다.
 - 조달 및 법률 담당자와 함께 기존 계약서 템플릿을 검토하고 조정하여 접근성 요구 사항을 표준으로 삽입할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합니다. 이때 글로벌 표준 또는 이미 개발되어 있는 경우 도시의 ICT 접근성 조달 정책을 참조하면 됩니다 (13항 참조).
- 예비 공급업체로부터 정보를 수집하여 평가하기 위한 접근 방식을 검토합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수준에서 기존 규정 준수 여부를 평가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 제품 수준 - 가능하면 사용 맥락에 맞춰서 평가하는 것이 좋음
 - 솔루션 수준 - 즉, 모든 구성 요소가 개발되었고 서로 연동되도록 구성된 경우 접근성 표준이 어떻게 지원되는지 여부
 - 구현 수준 - 즉, 솔루션이 기존의 "완성" 환경에 통합될 때 접근성 표준이 어떻게 지원되는지 여부
- 기존 조달 프로세스를 모델 정책에 나온 다섯 가지 조달 단계에 맞춥니다. 차이점을 판단하고 조정해야 할 부분을 찾아냅니다. 도시 수준의 프로세스는 국가 정부 수준과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된 ICT 조달과 중요한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 조달 프로세스의 다섯 단계에 걸쳐 다양한 작업을 완료하는 데 걸릴 시간을 고려하여 일정표를 만듭니다(예: 승인을 받는 데 걸리는 시간, 예외를 처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

다섯 가지 조달 단계

- 1. 예비 조사** - 조달 기관이 필요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시장(공급업체)에서 제공할 수 있는지를 조사합니다. 조달할 ICT 솔루션에 대한 조직과 사용자의 요구 사항을 정리합니다.
- 2. 입찰 모집서 작성** - 조달 기관이 필요한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조달 방법을 서류로 작성하여 잠재적 공급업체에 발송합니다. 이 단계에서 조달 기관은 공급업체가 접근성 기준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를 요청합니다.
- 3. 입찰 평가** - 조달 기관이 입찰 모집서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각 공급업체의 답변서를 평가합니다. 평가 중에 규정 준수 자가 신고, 지원 증거 자가 신고, 타사 평가 인증서 결과 자가 신고 등을 허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공급업체가 접근성 요구 사항을 충족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VPAT(Voluntary Product Accessibility Template)이 있습니다.
- 4. 상품 평가** - 조달 기관은 상품이 입찰서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자체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장애인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해 보는 것도 이러한 과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5. 계약 관리** - 계약 관리에서 접근성을 어떻게 채택할 것인지를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예외를 처리하는 프로세스와 공급업체 및 사용자로부터의 피드백을 구하는 프로세스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특히 ICT 서비스 조달과 관련이 있습니다.

6단계: 도시 기관 전체에 구현



- 현재의 접근성 교육 서비스를 평가합니다. 누락된 교육 서비스를 찾아서 우선적으로 처리합니다.
- 누가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를 정하기 위한 접근성 교육 계획을 세웁니다. 언제 어떻게 새로운 교육을 제공할 것인지를 정합니다.
- 대중과 공공 부문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 정책에 대한 교육, 역량 강화 및 인식 제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공합니다. 핵심 요구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접근성 교육 리소스를 개발/확보/제공합니다. 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도시와 정부에서 개발하고 사용하는 교육 리소스를 활용하여 격차를 해소합니다. 교육 일정을 세워서 발표하고 기관 임직원들에게 교육 서비스를 알립니다.
- 강사 진행 강의를 필요한 곳에서는 "강사 교육하기 (train the trainer)" 옵션을 구매하여 확장성을 향상시킵니다.
- 교육을 받은 직원들을 관리합니다.
-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직원 피드백을 요청합니다.

7단계: 새로운 조달 정책 구현 검토 및 모니터링



- 정책의 정기 모니터링(최소 2년에 한 번)을 위한 프로세스를 만듭니다.
 - 정책 구현 및 변경을 모니터링하고 검토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합니다. 장애인을 모니터링 및 검토 단계에 참여시킵니다(예: 최종 사용자, 시 공무원, 시민).
- 다른 스마트 시티나 CRPD 모니터링 프로세스의 성공 사례를 공유합니다.
 - 혁신과 발전을 CRPD 위원회와 공유하면 국가 보고에도 도움이 되고 다른 도시에 교훈이 될 수도 있습니다. ICT 접근성 혁신과 관련된 상을 만들어서 접근성 조달 투자가 얼마나 더 큰 혁신을 이루어낼 수 있는지를 인식시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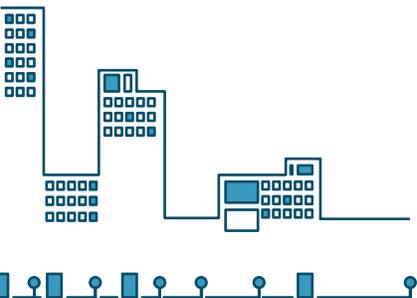
4

결론

조달은 정부에서 이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영향력이 큰 정책 수단 중 하나입니다. 조달 정책은 시장 움직임, 개인 회사, 시민 생활 등 여러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장애인과 노년층의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이들이 원하는 환경과 이용하고 싶어하는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는 정책 결정자들이 결정을 내릴 때 이들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ICT의 가장 큰 구매자 중 하나이기 때문에 스마트 시티 프로그램 및 솔루션에서 ICT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조달이 특히 중요합니다.

이미 도시에서 채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국내 및 국제 정책이 존재하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정책을 만들기 위해 오랜 개발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이 가이드에 제시된 7단계 점검 목록을 통해 기존의 국내 및 국제 정책을 개별 도시에 맞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점검 목록에 설명된 단계를 이행함으로써 스마트 시티 책임자는 공무원들과 시민들 사이에서 ICT 접근성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모두를 위한 디지털 포용성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G3ict

포괄적인 정보통신기술(ICT)을 위한 글로벌 이니셔티브(G3ict, Global Initiative for Inclusiv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는 UN 글로벌 ICT 및 개발 협회가 UN DESA의 장애인권리협약(CRPD) 사무국과 협력하여 2006년 12월에 시작한 권익 보호 이니셔티브입니다. 이 이니셔티브의 목표는 디지털 접근성과 보조 기술을 홍보하는 CRPD 구현 및 지원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g3ict.org/>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World Enabled

World Enabled는 세계적인 교육, 커뮤니케이션 및 전략 컨설팅 그룹입니다. World Enabled는 장애인의 인권 향상을 위한 수단과 법률 자문으로 기업과 정부를 지원합니다. 도시 계획 및 포용적인 도시 개발을 둘러싼 연구 이니셔티브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World Enabled는 전 세계 파트너들과 더불어 장애인들이 재능을 계발하고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포용력 높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worldenabled.org/>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팀 소개

모두를 위한 스마트 시티 이니셔티브는 G3ict 부사장인 James Thurston과 World Enabled의 회장인 Victor Pineda 박사가 이끌고 있습니다. Thurston 부사와 Pineda 박사는 세계적으로 저명한 전문가들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스마트 시티의 모든 장점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광범위한 연합체를 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Victor Santiago Pineda 박사는 World Enabled의 회장입니다. GAATES(Global Alliance on Accessible Technologies and Environments)의 회장직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제 장애인 인권의 저명한 리더로서, 미국 오바마 대통령 재임 당시 건축물 및 대중교통 장애물 규정 준수 이사로 지명된 바 있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캠퍼스에서 도시 계획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Pineda 박사는 국립과학재단(NSF) 혁신 연구 지원금, 풀브라이트-

헤이 장학금, AAPD Paul G. Hearne 리더십 어워드를 수상했습니다.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 캠퍼스에서 문학사와 이학사, 도시 계획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캘리포니아대학교 로스앤젤레스 캠퍼스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James Thurston 부사장은 국제적으로 저명한 기술 정책 리더입니다. G3ict의 글로벌 전략 및 개발 부사장으로 G3ict의 세계적인 영향력을 제고하기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의 설계와 구현을 이끌고 있습니다. 미국 및 다른 국가의 고위 공무원들에게 기술 정책, 인권, 디지털 포용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Thurston 부사장은 심각한 사회경제 문제에 기술 정책과 공공 부문 정책을 모두 적용해 본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민간 부문과 공공 부문에서, 그리고 연방 정부, 주 정부, 국외 정부에서 정책과 관리를 담당한 포괄적인 경험의

소유자입니다. G3ict에 합류하기 전에는 Microsoft에서 해외접근성정책 이사직을 역임하며 장애 및 기술 문제에 대한 Microsoft의 역량을 확장하기 위한 세계적인 전략을 개발하고 이행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Thurston 부사장은 워싱턴대학교에서 공공행정 석사 학위와 동유럽학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메인대학교에서 국제정치학 문학사를 받았습니다.

모두를 위한 스마트 시티 리소스

www.smartcities4all.org 에서
추가 톨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문의:
info@smartcities4all.org

